



明慧週刊



麥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73期(2026.01.16) WWW.MINGHUI.ORG

한글판 1037호 minghui.or.kr



▲ 2026년 1월 10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 모데스트시 갤로 예술센터 메리 스튜어트 로저스 극장에서 열린 선원북미예술단의 2차 공연이 만석을 이룬 모습

주요내용

【수련교류】 좋은 사람 되기, 선행의 기본 함의 탐구

【수련교류】 대법으로 마음을 씻고 사부님을 도와 감로를 뿌리다

【시사평론】 수련자를 잔혹하게 해친 자들의 인과응보 사례

【문화예술】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

〈목 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8

■ 수련교류

냉담함을 없애고 자비를 수련해내다 11

“잭, 잘했구나”에 대한 실천적 체득 17

대법 중에서 수련하며 서서히 남을 위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다 19

명혜망 중국법회 문장을 읽고 전체적인 큰 방향을 보다 27

정(正)과 사(邪)의 한 차례 대전(大戰) 30

좋은 사람 되기, 선행의 기본 함의 탐구 40

대법으로 마음을 씻고 사부님을 도와 감로를 뿌리다 44

■ 시사평론

수련자를 잔혹하게 해친 자들의 인과응보 사례 53

■ 문화예술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 61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2026년 1월 11일, 말레이시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심득교류회가 페탈링자야 크리스털 크라운 호텔(Crystal Crown Hotel)에서 열렸다. 이번 법회에서는 총 21명의 수련자가 단상에 올라 생활과 직장, 그리고 각종 진상 알리기 항목 속에서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법리에 따라 착실히 수련하며 안으로 찾은 체험을 나누었다. 수련자들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사부님과 법을 믿고 정념으로 난관을 돌파한 과정, 그리고 수련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하나의 정체(整體)를 형성하며 사부님을 도와 중생을 구해 온 여정을 공유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온 엘리사(Elissa)는 2014년에 법을 얻었다. 그녀는 처음 공원에서 평온하고 아름다운 연공 음악에 이끌려 파룬궁을 접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가족의 지지 속에 그녀는 세렘반 신도시 공원을 새로운 연공장으로 정하고 자신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법공부 장소로 활용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수련자들을 태워다 주고 함께 연공하며 진상을 알렸고, 많은 시민이 연공장에서 대법의 평화롭고 상서로운 에너지를 느끼고 수련에 들어오게 됐다. 그녀는 연공장에서 여러 차례 신기한 현상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우담바라꽃이 피어난 일, 외출해 연공하려고 할 때 갑자기 큰비가 내리다가도 마음속으로 ‘비가 잦아들기를’ 바라는 일념을 내면 곧 빗줄기가 잦아들었던 경험 등이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그녀는 더욱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제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대법 항목을 위해 길을 열어줍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연휴와 2026년 새해 기간, 뉴질랜드의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은 남태평양의 관광 명소인 타히티섬을 찾았다. 수련자들은 자유시장, 버스터미널, 해변, 도심 등 번화가에서 홍보, 연공, 진상 알리기 활동을 전개하며,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과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 진상을 알렸다. 현지 최대 언론사인 《타히티 정보(Tahiti Infos)》는 수련자들을 단독 인터뷰하고, 지역 뉴스 면에 ‘파룬궁과 명상, 그리고 탄압’이라는 제목으로 전면을 할애해 파룬궁에 관한 진상을 종합적으로 보도하고 1999년 7월 이후 중국에서 중공이 파룬궁에 대해 자행해 온 잔혹한 박해의 실상을 전했다. 여기에는 중공이 벌여온 초국가적 탄압과, 외교·경제적 압박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파룬궁을 음해하며 많은 사람이 박해를 외면하고 침묵하도록 만들어 온 행태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일정 중 현지 주민들이 파룬궁을 배우고자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여러 이야기도 함께 공유했다.

2025년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인도 파룬궁수련자들이 인도 교육부 산하 국립도서신탁기금회(NBT)가 주최한 푸네 도서전(Pune Book Festival)에 참가해 대법서적 ‘전법륜(轉法輪)’과 ‘파룬궁(法輪功)’을 전시하고 ‘진선인 국제미술전’ 일부 예술 작품들을 선보였다. 9일간 진행된 도서전에는 총 120만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그중 청년층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다수의 엘리트가 파룬따파 전시 부스에서 파룬따파의 평화롭고 바른 에너지를 체험했다. 사칼 미디어 그룹(Sakal Media Group) 총편집장 겸 최고운영책임자인 닐레시 카레 박사가 파룬따파 전시 부스를 방문해 이 수련법을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는 관련 자료를

더 읽어보겠다고 밝혔다. 화가 구루고빈드 암브레(Gurugovind Ambre) 박사가 파룬따파 전시 부스를 방문해 수련자들과 오랜 시간 교류했다. 그는 파룬따파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표했으며 ‘진선인 국제미술전’ 작품들에 감탄을 쏟아냈다. 이 작품들은 전 세계 각지의 파룬궁수련자 예술가들이 창작한 것으로 대법의 아름다움과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 속에서 수련자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됐다. 암브레 박사는 전시관 내부가 인파로 붐비고 소란스러웠지만 파룬따파 전시 부스에서는 유독 평온함과 바른 에너지가 느껴졌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대법을 알아보고 수련자들과 연락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파룬따파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묻자 그는 단 한 단어로 “평화”라고 답했다.

2025년 12월 30일부터 선원(神韻) 신기원예술단이 타이베이 대만 희곡센터, 타오위안 공연센터, 가오슝 웨이우잉 국가예술문화센터에서 잇달아 공연을 펼쳤다. 8회 공연은 매회 만석을 이뤘고, 다수 공연의 입장권은 1~2개월 전에 매진됐으며, 임시로 추가 오른 유보 좌석도 순식간에 동났다. 그믐날(12월 31일)과 1월 1일부터 남부 대만 공연이 막을 내릴 때까지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아 새해를 맞이하며 대만 예술계에서 보기 드문 성황을 이뤘다. 라이칭더 총통이 화환을 보내 축하했고, 류스팡 내정부장(장관), 구리슝 국방부장, 세귀량 지룽시장, 통쯔웨이 지룽시의회 의장이 선원의 대만 첫 공연 성공을 축하했다. 판전슈 총통부 국책고문, 뤼위링·완메이링 입법위원(국회의원), 그리고 타오위안시의 황충전, 웨이쥔, 천웨이예 의원 등도 타오위안 공연에 화환을 보내 지지를 표했다.

가오슝 공연 역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천치마이 가오슝 시장, 캉위청 시의회 의장, 류더린 시의원, 그리고 수칭취안 입법위원, 정칭위안 핑둥현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아 관람하며, 정통 예술로 중화 신전(神傳)문화를 선양하고 사회에 인심을 안정시키는 힘을 불어넣는 선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관객들은 선원이 보여준 것이 단지 ‘정확하고 정교하며 훌륭한’ 예술의 경지일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영혼의 대화라고 입을 모았다. 어떤 이는 “선원은 세계 최고의 선지식(善知識) 전파자”라고 묘사했고, 어떤 이는 “예술가들이 천명(天命)을 띠고 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며 감탄했다. 또 어떤 이는 “선원을 보는 것은 먼지 쌓인 플러그에 다시 전기를 꽂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더 많은 관객이 선원이 “선(善)의 순환”, “거대한 자비”, “우주의 진리”를 보여주었으며,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격동하고 불안한 정세 속에서 내면의 광명과 희망, 방향을 다시 찾게 해주었다고 밝혔다.

카이난 대학 부총장 천원자(陳文甲)는 처음으로 선원을 관람한 후 벅찬 감동을 느끼며 말했다. “극장을 나선 후 느낀 것은 단순한 시각적 충격이 아니라 문화적 근원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인간성의 선량함과 정신적 자유에 대한 긴 성찰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신과 이렇게 가까웠습니다. 선원은 우리가 ‘진선인’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고 더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천 부총장은 “선원은 무대 공연을 통해 제국 시대부터 현재의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5천 년의 역사를 연결해 주었는데, 감동 외에도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또한 생체 장기적출이라는 주제는 더욱 깊은 느낌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이 중공의 인권 박해를 부각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힘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2026년 1월 7~18일, 선원예술단이 케네디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미국 수도와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10회 공연을 펼친다. 워싱턴 DC의 엘리너 홈즈 노턴(Eleanor Holmes Norton) 국회의원은 선원예술단 설립 20주년과 케네디센터 공연을 축하하며, 워싱턴 DC에서 선원 공연이 열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1월 9일, 워싱턴DC 시의원이자 공공사업 및 운영 위원장인 브리안 나도(Brianne Nadeau)가 선원예술단에 축하 서신을 보내 선원 설립 20주년과 케네디센터 재공연을 축하했다. 그녀는 창의력 넘치는 이 고전 음악과 무용 공연이 워싱턴DC 관객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를 지지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제임스 워킨쇼(James Walkinshaw)가 서신을 보내 선원예술단 설립 20주년과 새로운 글로벌 순회공연 시작을 축하하며, 선원 예술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 관객에게 다시 선사하게 된 것을 축하했다. 워킨쇼 의원은 선원예술단의 끊임없는 노력은 공연 예술이 유대와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데 있어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해마다 방대한 규모의 공연을 유지하고 관객을 매료시키는 선원의 헌신적인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원난성 쿤밍(昆明)시의 60대 파룬궁수련자 한전쿤(韓震昆)이 2025년 12월 26일 쿤밍시 우화구 법원 판사 리중위안(李中原)에 의해 5년의 부당한 형기와 벌금 5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이는 그의 네 번째 불법 형기 판결로 이전 세 차례의 억울한 옥살이를 합치면 누적 15년에 달한다. 그는 재판정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신앙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올해 61세인 한전쿤은 전직 쿤밍시 테니스 선수로 1991년에 은퇴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심신에 큰 혜택을 입었다. 한전쿤 가족은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탄압을 받았으며 그 본인만 세 차례 불법 형기 판결을 받아 15년간 옥고를 치렀다. 2025년 1월 13일, 한 운전자가 차 안에서 파룬궁 내용이 담긴 USB를 발견했다며 악의적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녹화 영상을 통해 이것이 한전쿤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다. 2025년 5월 20일 그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자발적으로 파출소에 갔으나 소지하고 있던 파룬궁 자료 때문에 납치됐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한 후 쿤밍시 관두구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5년 12월 1일 우화구 법원은 한전쿤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고 방청석에 친척 한 명의 입장만 허용했다.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닝안시의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수련자 관련빈(關連斌)은 2025년 8월, 하얼빈 쑹베이구 공안분국 경찰에게 납치됐고, 이후 불법 구금 및 모함을 당했다. 모든 이른바 ‘증거’는 조작된 것이었다. 12월 23일 오전, 하얼빈시 다오와이구

법원은 화상 방식으로 그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최근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관렌빈은 이미 다오와이구 법원에서 불법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관렌빈은 여러 차례 납치와 구금을 당했으며 세뇌반에 끌려가 강제로 전향을 강요받기도 했고, 불법적인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쓰촨성 메이산시의 70세 파룬궁수련자 완우(萬武)가 2025년 5월 13일 자택에서 메이산시 등포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장 홍웨이하오(洪維浩) 등에게 납치됐다. 이후 현지 공검법(공안·검찰·법원) 인원들이 공모해 그녀를 모함했으나 구체적인 과정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완우는 이미 2년 10개월의 부당한 형기를 판결받았다. 그녀는 이전에 이미 두 차례 강제노동 도합 4년과 3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5년 5월 13일 오전 메이산시 공안국과 국보 대장 홍웨이하오 등은 등포구 공안분국 경찰들과 연합해 완우의 집에서 9명의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했다. 당시 완우는 구치소에 감금됐다. 메이산시 등포구 공검법 인원들은 그녀에게 죄명을 뒤집어씌웠다. 2025년 12월 18일 등포구 법원은 항저우로에서 불법 재판을 열었다.

랴오닝성 다렌시 파룬궁수련자 왕홍위(王紅玉)는 2025년 4월 3일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뤼순커우구 장시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 가택수색 및 불법 감금을 당했다. 2025년 12월 중순, 현지 법원은 왕홍위에게 불법적으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녀는 현재 항소 중이다. 왕홍위는 1977년 5월생으로 올해 49세이며 다렌시 뤼순커우구에 거주한다. 왕홍위는 10년 전에도 불법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허난성 루저우(汝州)시 파룬궁수련자 허원샤(何文霞)는 2025년 10월 20일 루저우 국보에 납치된 후 구치소로 보내져 불법 감금됐으며, 12월 18일 신샹(新鄉) 여자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를 받았다. 허원샤는 5년 전 부당한 2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2020년 3월 22일, 허원샤의 남편 창신친(常新欽)은 6년간의 억울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해 집으로 돌아왔으나, 당시 새로 부임한 루저우시 국보대대 대장 하오야창(郝亞強), 시위원회 정법위, 가도사무소 등이 그녀를 번갈아 괴롭혔다. 2020년 6월 24일, 허원샤가 타지에서 일하던 중, 루저우시 국보대대 대장 하오야창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녀를 납치했으며, 이후 모함을 당해 루산현 검찰원에 넘겨졌다.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소위 ‘처분보류’로 풀려났다. 이후 그녀는 루산현 법원에서 2년형을 억울하게 선고받았고, 항소 후에도 억울한 판결이 유지됐다. 그리고 건강 검진 문제로 인해 계속 집에서 지냈다.

냉담함을 없애고 자비를 수련해내다

글/ 북미 대법제자

[명혜망] 수련 과정에서 최근 몇 년간 사부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시는 방식 중 하나는, 머릿속에서 사부님의 어떤 설법 단락이 저절로 암송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법을 외운 뒤 기억하는 법이 많아져서인지 이러한 일깨움 방식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연공을 하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 제4강에서 하신 말씀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수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적으로 당신 자신이 견뎌낼 수 있는지 없는지,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고생을 겪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렸다.” 그런데 당시 이 말씀 중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전법륜)라는 구절에서 ‘대가(付出)’라는 단어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원래 매우 익숙하게 외우던 문장이었는데 말입니다. 연공을 마친 뒤 급히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부님께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부족하다고 일깨워주시는 것인가? 선원(神韻)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많은 수련생과 비교하면 확실히 부족하지만, 이미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연휴에 일주일 쉬었고 그 전후로 두 번의 주말이 이어져 총 9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선원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식이 너무 단조로운 것일까요?(시간 문제로 주로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때는 사부님께서 무엇을 일깨우신 것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이어진 주말에 일어난 한 가지 일로 사부님의 일깨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토요일에 비교적 변화한 거리로 포스터를 붙이러 갔다가 마무리할 즈음 한 치과 진료소를 보게 됐습니다. 당시 제 손에는 포스터와 전단만 있었고 달력은 없었습니다. 사실 달력은 진료소 같은 곳에 더 적합한데, 1년 내내 걸려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그냥 들어가 전단만 둘 것인가, 아니면 차로 돌아가 달력을 가져올 것인가?’ 차는 멀지 않았지만 왕복 10분이 걸리고, 진료소도 이 한 곳뿐이었습니다. 사람의 효율로 따지며 돌아갈 가치가 있는지를 재고 있었는데, 문득 그날 사부님의 일깨움, 즉 ‘대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중생을 위해 조금 더 대가를 치르고 베풀 의지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효율 원칙이 사람을 구하는 일에 적용될 수 있는가? 중생을 위한 일인데 무엇을 망설일 필요가 있는가?’ 결국 차로 돌아가 달력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접수대의 두 직원이 보였는데, 모두 선량해 보여 더욱 주저 없이 차로 가서 달력을 가져왔습니다.

진료소로 돌아왔을 때 마침 의사도 데스크로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의사가 대부분 안쪽에 있어 좀처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친절하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선원 달력 한 부를 전달하러 왔으며, 이 아름다운 달력이 1년 동안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원 광고는 자주 보지만 ‘선원’이라는 두 글자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포스터를 붙이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곧 바로 선원 공연에서 사회자가 설명하는 말, 즉 ‘선원은 신이 춤을 추는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

습니다. “Shen Yun means: the beauty of divine beings dancing(선원은 신이 춤을 추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제가 ‘beauty(아름다움)’라는 단어를 말하자마자 그는 과장되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 the beauty(미녀)!”라고 했습니다. 영어의 ‘beauty’가 ‘아름다움’ 외에 ‘미녀’라는 이중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그가 선원을 미녀들의 춤으로 오해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뒤이어 “of divine beings dancing(신이 추는 춤)”이라고 말을 댔었습니다. 제가 뒤이어 몇 단어를 더 말하자 그의 표정은 즉시 극적으로 바뀌어, 농담하던 모습에서 매우 진지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연에서 늘 듣던 이 한 문장이 이렇게 큰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니.’

그는 선원 달력과 전단을 받아든 뒤, 맨 위에 적힌 문구인 ‘공산주의 이전의 중국’을 곧바로 주목했습니다. 그는 문화대혁명을 다룬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시기에는 아이들조차 부모를 고발할 수 있었다고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다며, 친척·부부·사제 사이에서도 서로 등을 돌릴 수 있었지만, 그것은 본래의 뜻이 아니라 중공(중국공산당)의 강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너무 무섭다며 미국은 공산주의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중공이 지금도 미국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매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마침 가방 안에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국경을 넘은 탄압)을 다룬 전단이 몇 장 있어, 자연스럽게 그와 데스크의 두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의사는 전단을 보고 “당신이 말한 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자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와 데스크 직원에게 선원 티켓 구매를 당부했고, 마지막에 우리는 기분 좋게 작별했습니다.

진료소를 나서자마자 즉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의사에게 이렇게 충분히 진상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중생을 위해 조금 더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 한 생각을 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전단만 들고 바로 들어갔다면, 의사는 전혀 데스크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이번 경험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성이 조금만 제고 되고 자비심이 조금만 더 많아져도, 사람을 구하는 효과는 즉시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님께서선원을 홍보할 때 행동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생을 위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전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세히 반성해 보니, 선원 일을 할 때의 제 마음가짐은 많은 경우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대법제자이기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혹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겼고, 그것이 사부님의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진정한 소중함과 연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자각적으로 중생을 위해 감당하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가짐도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것과 수련은 다른 것임을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사람을 구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과 중생을 구하려는 염원이 강한 것은 사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생을 구하려는 염원이 강한 수련인은 반드시 많은 구인(救人) 활동을 하게 되지만 그 반대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로 하여금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중생을 위해 조금 더 베풀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구(舊)우주 생명 깊숙이 존재하는 매우 차가운 것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다른 생명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스스로는 수련이 잘 된 것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냉담함이었습니다. 생명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긴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구우주에서 비롯된 ‘사(私)’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압니다. 생명이 육신을 잃더라도 윤회 속에서 다시 태어나 구원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법 속에서 도태된다면 그것은 형신전멸(形神全滅)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들 역시 한때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높은 층에서 내려온 중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법륜》 제3강에서 사부님께서 언급하신 구우주의 그 몇몇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대각자, 대도(大道)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차갑게 앉아 사부님께서 사람을 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며칠 동안 나는 정말 마음속으로 아주 괴로운, 그런 기분을 느꼈다.”(전법륜)

자신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매년 선원 홍보에 힘써 참여해 왔지만 마음속에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했던 냉담함 때문에 세인에게 진상을 명확히 알릴 많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때로는 상점 주인 대부분이 평소 가게에 없었고 의사도 데스크에 없으니 주류사회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진정으로 자비로운 정념의 장을 지니고 있었다면, 인연 있는 가게 주인과 의사는 앞의 사례처럼 제 앞에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선원을 보고 싶다고 말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저는 그저 빨리 표를 사라고 당부했을 뿐, 그 가게를 기록해 두었다가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찾아가 이야기해 볼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생을 그 정도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에, 그런 일들을 떠올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냉담함은 대법제자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본질은 이미 사부님에 의해 재창조됐고 신우주는 ‘타인을 위한[爲他]’ 것이며,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타인을 위한’ 생명이 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되며 분명히 인식했다면 버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다시 사부님의 한 구절 법이 울려 퍼졌습니다. “창세주 새 천체를 다시 만듦은 중생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네”(홍음 6-실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부님께서 사랑하시는 중생을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하며, 냉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부님의 사랑은 자비이십니다.

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선원을 힘써 홍보하는 동시에 자신의 일을 하는 마음가짐에도 주의를 기울여 더 많은 자비를 수련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래야만 중생을 선원 공연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부님께서도 우리가 제고해야 할 부분에서 반드시 일깨워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득이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비로운 지적 바랍니다.

“잭, 잘했구나”에 대한 실천적 체득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법 구절마다 우리는 세심하게 체득해야 하며, 법으로 우리의 일언일행을 지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대법 속에 깊이 몰입돼 아름다운 경지에 들어서게 되고, 대법의 신기함과 위대함을 체득하게 됩니다!

A 수련생이 B 수련생에게 자신이 진상 자료를 많이 만들었다고 말하자, B는 그것을 본 후 “별로 많이 안 만들었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는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B는 반어법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A는 B에게 왜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에서 말씀하신 “잭, 잘했구나”처럼 말해주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잭, 잘했구나”라고 한 번 반복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번 반복하자 마음속이 정말 편안해졌고, 심지어 내심 깊은 곳에서부터 기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전법륜』에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잭, 잘했구나”, “툼, 장하구나, 이 녀석”이라는 구절을 따라 배웠습니다. 한번은 C 수련생이 하룻밤 사이에 진상 자료를 아주 많이 만든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일을 꽤 많이 하셨네요! 잭, 잘했어요.” 그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번은 조카가 며칠간의 휴가 기간을 이용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힘들어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장하구나, 이 녀석.” 저는 즉시 우리 사이의 마

당이 변하는 것을 느꼈는데, 매우 온화하게 변했습니다.

한번은 노년 수련생 부부가 서로 자주 원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자주 보시고, 상대방에게 ‘쟤, 잘했구나’라고 자주 말씀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않으면 정말 즐거워질 것이고, 두 분 사이의 마당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 구절은 아주 직설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실천해보면 그 속에 내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저는 문득 이 법 구절의 또 다른 층차의 내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질투심을 타파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부님께서 “그것은 사람의 질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만약 잘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전법륜)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쟤, 잘했구나”, “툼, 장하구나, 이 녀석”을 반복할 때, 즉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 줄 수 있을 때, 어떠한 좋지 않은 생각도 없게 되며 마음이 넓고 밝아집니다. 정말 기쁩니다. 이 기쁨은 사람 중의 정(情)이 아니라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타인을 위해 기뻐하는 법의 현현(顯現)입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이 법에 의해 씻겨나간 듯 용량도 커졌습니다. 여러분도 실천해보신다면 그 속의 내포와 신기하고 아름다운 경지를 체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사부님의 법리가 말씀은 평이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동화될 수 있다면 그 속에 정말 깊은 내포가 있으며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투심 문제는 본래 매우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우리 대법제자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부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간단히 타파되니 정말 신기합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뭇 신이 주목하고 있으며 무량무계한 신들이 우리가 대법제자가 된 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구세력 역시 대법제자를 질투하여 대법제자에게 거대한 고비와 난을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부님께서는 대법제자를 어떻게 보실까요?

사부님께서는 “대법제자의 위대함은 당신들이 사부가 정법하는 시기와 함께 있으며 대법(大法)을 수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진요지 2-정법시기 대법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부님께서는 대법제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뭇 신들 역시 대법제자의 책임과 사명을 올바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뭇 신들 역시 “잭, 잘했구나”(전법륜)라는 마음으로 대법제자를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법과 대법제자와의 관계를 바로잡아야만 정법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법제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실제 수련 중의 체득으로, 글로 써서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대법 중에서 수련하며 서서히 남을 위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퇴직하기 전 대학 교사였습니다. 대법은 제가 사심(私心)과 이기심의 진흙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와, 조금씩 깨닫고 남을 위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며, 선타후아(先他後我), 무사무아(無私無我)의 정각(正覺)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심성(心性)을 수련하고 제고한 몇 가지 일화를 적어보겠습니다.

1. 교육을 중시하니 상사가 인정하다

직함 심사는 교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명예, 지위, 대우가 모두 올라갑니다. 직함 심사에서 연구 성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에 대다수 교사는 연구를 중시하고 교육을 경시하며, 대량의 시간과 노력을 연구에 쏟고 교육은 대충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대법을 수련한 후, 법 속에서 저는 수련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진선인(眞·善·忍)으로 좋고 나쁨을 가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리를 위해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선(善)하지 못한 것임을 깨닫고, 업무의 중점을 교육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수업을 준비했고, 전공 지식을 전수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도덕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1999년 ‘7·20’ 이전에는 직접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찢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이야기했고, ‘7·20’ 이후에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 지혜를 열어주셔서 머리 회전이 아주 빨라졌고,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돼 연이어 교육 우수상을 받았으며 학생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단과대학 내 다른 학년, 타 단과대학, 심지어 다른 대학 학생들까지 제 강의를 청강하러 왔습니다. 대학 측은 전공을 바꾸거나 자퇴하려는 신입생을 줄이기 위해, 원래 2학년에 개설해야 할 제 강의를 1학년 1학기로 옮겼습니다. 정말로 전과나 자퇴 후 재수하려던 신입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는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계시다니 이 전공, 이 대학은 다닐 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제가 천안문에 가서 대법이 좋음을 실증했다는 이유로 학교는 제게 2년간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장은 “신입생을 안정시키는 건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다”라며 억지로 저를 1년 일찍 강단에 복귀시켰습니다. 교육부 대학 평가 전문가이자 인문계열 조장인 모 대학 부총장은 제 수업에 대해 “내용이 풍부하고 상세하며, 논리가 치밀하고, 사람을 향상하게 하며, 아주 재미있다”라고 평했습니다. 그는 강의를 이렇게 잘하는 교사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신입생 환영회에서 사회자가 세 번이나 저를 소개했는데, 그때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그치지 않아 사회자의 목소리가 문힐 정도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학교 간부들과 타 단과대학 내빈들이 잇달아 뒤를 돌아 저를 쳐다보았고, 신입생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일어나 저를 바라보았으며, 두 학생은 무대를 장식했던 풍선과 꽃을 떼어 제게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일어나 감사를 표해야 했습니다.

퇴직 후 학교는 저를 10년간 재임용했습니다. 재임용 교사는 학생 평가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는데, 한해는 어쩌다 보니 제가 시스템에 등록됐고, 학생들의 점수 평가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사실 교육과 연구는 상호 촉진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로 문제를 해결하며, 연구는 교육을 심화하고 향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을 중시하면서도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고위직 직함을 심사받을 때, 저는 정념(正念)이 있는 총장(정청급)을 만났습니다. 그는 심사 대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파룬궁을 연마하는 교사들은 모두 교육의 중추이고 사도의 모범

이니 심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몇몇 수련생은 교수가 될 사람은 교수가 되고, 강사가 될 사람은 강사가 되어 한 명도 빠짐없이 승진했습니다.

2. 사람을 포용하여 유혈 사태를 해결하다

어느 날 자정, 0시 30분쯤 아래층에서 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개, 네가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하고도 시에서 너를 처리 못 할 것 같아? 성(省)에서도 못 할 것 같아? 내가 성에 가서 고소하지 않으면…” 당시 집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아래층에는 키 큰 노인과 키 작은 노인 두 분이 있었는데, 키 작은 분이 펄쩍 뛰며 욕을 했고 키 큰 분은 말리면서 그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저 사람(키 작은 분) 화병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른 내려가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제 남편이 어떻게 어르신을 화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집에 없으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는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딸이 임신했는데…” 제 머리가 ‘멍’ 하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애를 가졌다고 사위놈한테 지우라고 했대. 세상에 이렇게 남녀 차별하는 놈이 어디 있어?” 저는 안도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건 확실히 잘못했네요…” 그는 칼을 가지고 왔다고 말할 때마다 가방을 ‘탁탁’ 쳤는데 소리를 들어보니 식칼 같았습니다.

이때 택시 한 대가 와서 저와 키 큰 노인은 그를 차에 태워 보냈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위기에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그의 사위가 찾아와 사과하고 해명해서 알게 됐는데, 욕하던 노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퇴원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감시가 소홀

한 틈을 타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임신 2개월 정도라 성별도 모르는데 그가 망상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대법을 수련하여 매사에 남을 위해 생각하고 그가 화나서 병이 날까 봐 염려했으며, 그의 모욕과 우리집에 끼칠 명예 손실을 따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제가 그와 시시비비를 따져 그를 화나게 했다면 그가 식칼을 휘둘렀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는 정신질환자라 형사 책임도 지지 않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진선인은 높은 덕(德)이자 큰 지혜입니다. 저의 선한 대우와 포용이 일촉즉발의 유혈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3. 사부님을 믿고 거대한 고비를 벗어나다

제 아들의 직장에서 중대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이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아들은 기밀 업무의 첫 번째 단계를 맡고 있었고, 부서 상사와 나중에 형을 선고받은 과장이 두 번째 단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부서 상사는 자신을 빼내고 혐의를 벗기 위해 아들에게 “네가 유출했다고 인정해”라며 여러 차례 위협하고 회유했으며 상급자에게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아이는 자기는 유출하지 않았으니 조직에서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속담에 ‘어느 절이나 억울한 귀신은 있다’고 하지만, 중국에는 억울한 사건과 오심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아이는 정말로 절체절명의 재난에 직면했습니다.

4개월간의 조사 과정에서 매일 조마조마하며 재난이 닥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수련에 우연한 일은 없으며 모든 것은 업력의 인과응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생의 억울한 귀신도 지난 생을 보면 억울한 게 하나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지면 사부님께 구해주시고 해결해 주

십사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사부님께서 관여해주셨습니다! 입건부터 종결까지 경찰은 많은 사람을 형사 구류하고 소환했지만, 아들과 그의 업무 파트너는 찾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무사했습니다.

뜻밖에도 풍파가 다시 일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 아들의 직속 상사는 여전히 아들이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자기가 사건 기록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녀 말대로라면 경찰이 아들을 찾지 않았을 리 있겠습니까? 그럼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억울한 게 아닙니까? 이런 혐의를 뒤집어쓰면 아들의 앞날은 끝장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부득이 저는 친구를 통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확인해 보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유출된 것이라 아들 및 아들의 업무 단계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을 듣고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의 부서에 부처장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원래 내정자가 형을 선고받아 아들과 다른 과장에게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직속 상사는 그 과장을 쓰고 싶어 유출 사건으로 아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경쟁에서 물러나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 아들의 직속 상사는 부청급(副廳級) 자리를 노리고 있었는데, 위법 행위로 고발당해 성(省) 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아들에게 조사에 협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요즘 사람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법(法)에서 깨달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들의 상사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측근을 기용하고 아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사부님께서 이 거대한 고비를 이용해 제 업력을 전환하고 저를 제고시키고 공(功)을 자라게 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부님의 안배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 법리(法理)를 말해주며 직속 상사에게 화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며 보복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들은 철이 들어 기율검사위의 심문에 엉뚱한 말을 하지 않았고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니다.

4. 선(善)을 지켜 외도한 상간녀를 구하다

제 남편은 관직이 청급(廳級)에 이르렀는데 여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중공(중국공산당) 악당에게 박해받는 중에 그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재혼하려 했으나, 암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진선인의 요구에 따라 원망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남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관심을 가졌고, 일상생활을 돌보며 베이징, 상하이 등 여러 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치료했습니다. 국내에서 양방과 한방 치료를 최고 수준으로 받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학업에 지장이 있을까 봐 아들도 오지 못하게 했고, 부하 직원들은 출근 안 해도 월급은 나오지만 생활은 해야 하니 그들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치료 편의를 위해 저는 근육주사, 항암 치료 장치 관리, 약 배합, 링거 교체, 마사지, 한약 달이기 등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의 불안과 절망을 이해했고, 먹지 못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는 등 그의 까다롭고 무리한 요구를 포용했습니다. 마침내 그를 감동시켰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대법을 수련하니 사람에게 건강과 안녕, 선(善)과 희망을 주는구나. 모든 골치 아픈 고난은 중공 악당이 이유 없이 박해해서 생긴 것이구나.’ 그는 삼퇴(중공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하고 정중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그의 가족들을 감동시켜 그들도 잇달아 대법이 좋다는 것에 동의하고 20여 명이 삼퇴했습니다.

임종 때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량함 덕분에 4년이나 더 살았어. 당신이 우리 어머니보다 나한테 더 잘해줬어.” 저는 제가 수련해서 그가 혜택을 입었고, 사부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주셔서 진상을 알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남편과 외도했던 여자들에 대해 저는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만나면 인상을 쓰거나 악담하지 않았고, 따로 기회를 찾아 진상을 알리고 그녀들이 중공 조직에서 탈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4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저는 각급 각종 강의를 사양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방학에는 3일 동안 세 도시를 돌며 3일간 강의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중공 악당을 폭로하고 간접적으로 진상을 알리며 대법을 실증하는 중요한 장소였고, 매년 4천여 명이 듣습니다.

제가 대법 중에서 수련한 지 거의 29년이 되었습니다. 수련할수록 사부님의 은혜가 호탕하고 대법이 무한함을 느낍니다. 수련할수록 평온하고 자유로우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고, 수련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이의 직속 상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지만, 아직 감사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으니 제 도량이 확실히 부족함을 느끼고 제고해야 합니다. 질투심, 과시심, 원망심, 안일심, 나이가 많다고 자신을 봐주는 마음 등이 여전히 저를 교란하고 있어, 무사무아, 선타후아의 정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명혜망 중국법회 문장을 읽고 전체적인 큰 방향을 보다

글/ 일언(一言)

[명혜망] 마음을 조용히 하고 2025년의 모든 명혜망 중국법회 문장을 읽으며, 자신의 정진하는 마음이 다시금 쇄신됐고, 수련하고 사람을 구하는 길에서의 장애를 돌파하여 사부님을 따라 끝까지 갈 더 큰 에너지와 자신감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90편 문장을 쓴 수련생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은 더 많은 중국 대법 제자의 최근 상태를 보게 됐다.

그들은 대법의 주체로서 중국이라는 그 혹독하고 공산당 당문화와 현대 관념으로 가득 차 있으며 도덕이 극도로 부패한 환경 속에서, 매일 자신을 닦고 남을 이롭게 하며 끊임없이 제고하고, 끊임없이 사부님의 법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 도덕, 처세, 가정의 책임, 사회적 책임, 인생 목적에 대한 명석한 인식, 인생의 굴곡과 고생을 바르게 사용하는 등등의 면에서 모두 진선인(眞·善·忍)의 위대한 위력을 실증하고 있으며, 일반인은 미치지 못하고 일반인이 구하려 해도 얻지 못하는 초월적인 경지에 도달했다. 대법제자의 정신(正信), 정각(正覺), 정행(正行)은 중국공산당(중공)의 거짓말을 타파하고 세인들이 인생에 지극히 중요한 진상을 알도록 도왔으며, 세간에서 대법과 대법제자를 위해 마땅히 있어야 할 존중을 얻어냈다.

많은 문장은 자신이 어떤 면에서 사람 마음과 관념에 대한 집착을 제거했는지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갈등하고 깨닫

고 언행의 경지가 실질적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적어냈다.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얻게 되어, 법회가 비학비수(比學比修)의 작용을 더 잘 일으키게 했다.

또 어떤 문장은 평범한 서술 속에서 대법제자의 오늘날 경지와 박해 초기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때와의 천양지차를 보여주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다. ‘남편의 억울함 호소하며 법률을 이용해 진상을 알리다’라는 긴 문장에서, 80세에 가까운 한 여성 수련생은 남편이 중공에게 불법 판결을 받아 피해자 가족으로서 박해를 받았지만, 사적인 각도에서 보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수련생은 인간 세상의 나이에 집착하지 않고 중공 사회의 험악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한마음으로 사람을 구하고 진상을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아가 공검법(공안·검찰·법원) 인원들을 진상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른 수련생들도 마찬가지였다. 법률 형식과 법률 용어를 사용해 진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면 책을 사서 공부하고, 공의포럼(公義論壇)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며, 현지 수련생과 긴밀히 협력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두뇌가 맑고 이성적이며, 법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잘 활용했고, 법률을 ‘구세주’로 여기지 않았다. 그해 ‘혁명 영웅’식의 반(反)박해나 일반인 변호사가 고난에서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일반인 약자의 상태와 비하면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승화인가! 특히 중공 치하에 있으면서, 당 수괴가 “법도 하늘도 없다(無法無天)”라고 자칭하고 법률이 진작 중공이 국민을 농락하는 도구로 변해버린 그 땅에서 말이다. 대법제자는 고생을 적게 하는 것을 출발점과 목적으로 삼

지 않고, 착실하게 하루 또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사부님께서 쓰신 “대각자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나니 의지는 금강으로 만들었구나”(홍음 2-정념정행)를 실천하고 있다.

사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을 주셨지만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으신다. 우리 수련생들은 “오직 사존께서 웃으시기를 바랄 뿐(惟願師尊笑)”이라는 구절을 좋아한다. 우리 더 많은 대법제자가 법에 동화되고 법의 요구에 점점 더 접근할수록, 새로운 우주는 더욱 번영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부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존중, 그리고 보답이다!

명혜망 중국법회에 헌신한 모든 수련생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일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며, 법을 스승으로 모시고 신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모든 존경하는 수련생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중국법회의 성대한 광경을 보니 조맹덕(曹孟德, 조조)의 “다행스러움이 지극하구나(幸甚至哉)”가 생각나 즉흥적으로 몇 구절 읊어본다.

대법제자, 중토(中土)의 빛이어라

사람들이 추락하니 내가 구하고, 위험 맞서며 두려움 버리네

정법(正法)과 정각(正覺), 말법(末法)의 희망이니

도덕 무너져도 나는 수련하고, 진상을 세상에 주네

사심 없이 타인 위하니, 담금질 된 금강이라

사람과 신이 공존하고, 새 우주의 막이 오르네

다행스러움 지극하니, 노래로 뜻을 읊노라

大法弟子，中土之光；
 人墜我救，迎危舍懼。
 正法正覺，末法希望，
 德漬我修，真相予世。
 無私利他，淬火金剛，
 人神同在，新宇幕起。
 幸甚至哉，歌以詠志。

정(正)과 사(邪)의 한 차례 대전(大戰)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질푸른 하늘에 점차 여명이 밝아올 때, 저와 어머니도 6시 발정념을 마쳤습니다. 오늘 몸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사부님께서 내 업을 없애주시려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몸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체온도 점차 오르더니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은 만져지지도 주무르지도 못하는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었고, 머리도 마치 수만 개의 강철 칼로 찌르는 듯 분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업(消業)은 이전과 좀 달랐습니다. 시간이 길고 강도가 셧습니다. 이전에는 소업해도 하루면 회복됐는데, 이번에는 꼬박 3일간 지속됐고, 걸을 때도 새우처럼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구부려야 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침대에 누워 때로는 혼수상태로 때로는 깨어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부님께서 제자를 위해 또 얼마

나 많이 감당해주셨는지 몰라 감사드릴 뿐이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은 제가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되겠다 싶으면 휴가를 내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해 매우 허약해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몸무게를 재보니 무려 6kg이나 빠졌지만 저는 출근을 고집했습니다. 이전에는 소업 중에도 출근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기에 이번에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회사에 도착하니 식욕이 없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됐고 업무에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 집에 도착하니 사방은 고요했고, 쓸쓸한 별 몇 개가 검푸른 하늘에 걸려 차가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차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만 누르면 셔터 문이 스르르 열렸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서쪽으로 10m도 채 안 되는 곳에 차 한 대가 밝은 전조등을 켜고 저를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는 이쪽으로 오려다가 중간쯤에서 다시 물러났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우리집 아래층 이웃이 베란다에 무단으로 지은 작은 옥상에서 누군가가 우리집을 엿보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옥상은 우리집 창문에서 1m도 채 안 되는 높이였습니다. 이웃도 아버지에게 경찰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파출소에서 일하는 이웃의 친척이 그들에게 최근 우리 단지 CCTV에서 자꾸 대법제자들이 우리집에 가는 것이 목격됐다며(수련생들은 병업 고비를 겪고 있는 어머니 수련생을 도와 발정념을 하고 법공부하러 온 것임), 소위 ‘모임 현행범’을 잡으려 한다고 귀뜸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문에 누가 손댄 건가?’ 저는 생각하며 계속 리모컨을 눌렀는데,

‘아래로’ 버튼을 누르자 차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 왜 반대지? 위아래 버튼이 바뀌었나?’ 저는 의아해하며 차를 세워두고 ‘위로’ 버튼을 눌러 차고 문을 닫은 후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차고 문을 건드린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고모 댁에 가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으니 차고에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오늘 밤의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져 프린터 등 물건들을 포장해 일단 아래층 창고에 보관했다가 내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었고, 제가 한창 포장 중인데 갑자기 전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급히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더욱 괴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부님께서 움직이지 말라고 일깨워주신 건가?’ 어머니와 교류한 후 오늘 밤에는 움직이지 않고 내일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후(병업 고비를 아직 넘기지 못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앉아서 발정념을 했습니다. 저는 달린 상태로 수련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눈을 감자마자 저의 공간장에 기이한 것들이 희미하게 떠다니는 것이 보였고, 머릿속에는 두려움이라는 물질이 끊임없이 반영됐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계속 배척하며 밤새 발정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진상 지폐, 진상 자료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프린터도 숨겼으며, 수련생들에게 발정념을 부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 때, 무심코 문구멍에 뽕족한 칼로 세 군데 깊게 그어진 흔적과 초인종 버튼에도 한 군데 그어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어젯밤 초인종이 울린 것

은 경찰이 칼로 문구멍을 훼손해 우리가 밖을 볼 수 없게 하려 했지만, 문구멍이 너무 미끄러워 실수로 칼이 버튼을 건드려 초인종이 울린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와 짧게 교류한 후 발정념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주민센터 주임이 ‘위에서’ 또 문서가 내려왔는데, 파룬궁(法輪功)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라며 우리집이 주요 대상이라는 것을 선의로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당시 격분해 주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조항은 대법제자의 경제적 원천을 막는 것이라니, 이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게 아닙니까?” 선량한 담당 경찰도 아버지를 만났을 때 다급하게 아버지에게 “어르신, 몸조심하십시오, 몸조심하십시오…”라고 세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이웃도 경찰 3명이 카메라를 들고 우리집 부엌 밖의 방범창을 3번이나 와서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방범창이 열리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이고, 사람을 잡을 때 문을 두드리면 창문으로 도망갈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정보들을 듣고 중생들이 정의와 양심 편에 선 것에 위안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공포감이 덮쳐왔습니다. 마치 사악(邪惡)이 언제든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으로 찾았습니다. ‘내게 어디에 누락이 있어 사악이 빈틈을 탄 것이지?’ 몇 가지를 찾았으나 표면에 불과하다고 느껴져 사부님께 향을 올리고 절하며 제가 어느 부분이 대법에 어긋난 것인지 깨우쳐달라고 청했습니다. 곧 머릿속에 몇몇 장면이 떠올랐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익숙했던 일들,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법에 비춰보니 ‘진선인(眞·善·忍)’에 맞지 않았고,

모두 변이된 것이며, 사람의 교활함과 이기심이었는데도 저는 자신이 수련을 잘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앉아서 이러한 구우주의 쓰레기들을 제거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아니다, 나는 그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죽어야 한다! 멸(滅)하라!’ 동시에 사악이 쏘아 보내는 두려움의 물질을 끊임없이 배척하며 발정념을 했습니다. 저녁 6시 발정념을 할 때쯤에는 사악이 이미 공간장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고, 공(功)이 나가지 않았으며 아무런 느낌도 없어 저는 그저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생각했을 뿐입니다.

동공(動功) 연공을 마치니 9시가 넘었고, 어머니가 피곤해보여 먼저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은연중에 오늘 밤이 평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가부좌하고 앉았습니다. 사방은 고요하고 어두웠으며 두 손은 결인(結印)하고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또다시 기이한 것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은 추악하고 기괴했으며, 제 머리 위에서 떠다니며 온갖 추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외웠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면 그놈은 붙잡을 것이요 / 생각이 바르면 사악은 무너지리라 / 수련하는 사람은 법을 간직하고 있다네 / 정념을 발하면 썩은 귀신 터져버릴지니 / 신이 세상에서 법을 실증하고 있음이로다”(홍음 2-두려울 것 뭐냐). 동시에 반복해서 “나는 신의 생각만 원하고, 사람 생각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벗어나 신(神)으로 나아가리라”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점차 두려움의 물질이 해체되는 것을 느꼈고, 이때 온몸이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제자를 가지(加持)해주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

다. 지난 3일간의 강렬한 소업 상태는 오늘 이 대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제자의 몸을 정화하여 사부님께서 내려주시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순수한 경지에 이르게 해주셨고, 제자의 천목(天目)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부님께서 이미 제자를 제 위치로 밀어주셨는데 저의 정념이 미치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대법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사부님을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감사의 눈물을 머금었고 정념은 하늘을 곧장 뚫었습니다. 몸을 똑바로 세우고 한 손을 가슴 앞에 세웠으며, 머릿속에는 악을 제거한다는 글자뿐이었습니다.

그 악령과 귀신들이 위아래로 날뛰며 흉악하게 웃는 것을 보며 저는 ‘나는 너희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라는 생각을 내보냈습니다. 이 생각을 내보내자마자 그것들은 즉시 녹아버렸습니다. 사악이 공격을 시작하여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 부정적인 정보를 쏘아 보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법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의념은 내가 아니다, 나는 원치 않고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신의 생각만 원하고 사람 생각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배척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확고하게 악을 제거했습니다. ‘대법제자는 법의 입자(粒子)이며, 오직 대법 사부님의 관리를 받을 뿐이다. 대법제자를 교란하고 박해하는 모든 사악한 생명과 요소를 철저히 해체하고, 다른 공간에 모여 있는 모든 사악을 해체하여 철저히 소멸시키고 원시적인 기(氣)로 되돌려라. 사악이 중생을 조종하여 대법과 대법제자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정법에 대한 교란과 파괴이며 대법에 대한 모욕이다.’ 사부님의 가지 하에 정념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공(功) 또한 맹렬한 기세로

마장(魔障)을 뚫고 잠시도 쉬지 않고 하늘을 휩쓸었습니다.

점차 저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았고, 오직 에너지에 둘러싸인 채 악을 제거한다, 악을 제거한다는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또 한 번 강력한 공을 내보낸 후 하늘이 맑고 몸이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른 공간의 사악이 해체됐음을 알았습니다. 순간 저는 긴장이 풀렸고, 머리를 깊이 숙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심혈을 기울인 고통이 교차했습니다.

천천히 아프던 마음이 진정되자, 그때 제 손이 여전히 가슴 앞에서 세워진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거의 2시간이 지났습니다. 평소에는 결가부좌를 1시간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2시간을 하고도 다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저는 어머니를 깨워 새벽 12시 전 세계 발정념에 참여하시게 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너무 깊이 잠들어 몇 번 베개를 흔들어도 깨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부르지 않는 것이 낫겠다. 안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손이 쓰러지면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혼자 새벽 1시까지 발정념을 했습니다. 졸음이 몰려와 저는 누워서 쉬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30시간 넘게 잠을 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자 저는 정공(靜功)을 연공하자고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아침 6시 발정념을 마친 후 어머니는 기쁜 듯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여러 해 발정념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진정으로 발정념을 한 것 같다. 정말 하늘이 맑고 몸이 투명해지는구나.” 저는 속으로 웃으며 어젯밤의 대전(大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씻고 나서 사부님께

향을 올리려고 향에 불을 붙이고 향로에 꽂으려는 순간,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자비는 모든 사악을 해체할 수 있어.” 저는 사부님께서 제자를 깨워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체험했습니다. 정말 누구를 봐도 고달파 보였고, 무엇을 봐도 눈물이 났으며, 법을 볼 때도 늘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다른 공간의 사악은 해체됐지만, 이 공간과의 시간차가 있어서 그 며칠 동안 우리는 발정념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사악이 중생을 조종하여 대법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사이에 어머니를 1년 넘게 감시했던 변호사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경찰 3명이 저를 찾아와 선생님 집을 감시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왜 감시합니까?’라고 물으니, 그들은 그 집 사람들이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파룬궁 수련하는데 뭐가 어떨습니까? 도둑질도 안 하고 강도질도 안 하는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그렇긴 합니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의 인품이 어떤지 알아보세요, 제가 왜 감시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멧쩍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중생들의 선택에 정말 위안을 느꼈습니다. 정법이 널리 퍼짐에 따라 중생들이 각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없었는데 갑자기 집 전기가 끊겼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캄캄해졌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창밖으로 다른 집들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약 2분 후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낮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우리집

문을 뒤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 또 ‘인민 경찰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제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법이 바닥났고 이것이 마지막 교전일 것입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는 단지 안에서 순찰 중이던 담당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다급히 옆으로 끌고 가서 기뻐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집을 감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분 연세도 많으신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악이 미시적인 것에서 거시적인 것까지 철저히 해체됐음을 알았고, 마음속으로 사부님의 자비로운 가지에 몇 번이고 감사했습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제자를 보호하시고 사악을 해체해주셨으며, 장계취계(將計就計, 상대 계략을 역이용) 하시어 제자를 성취해주신 것입니다.

깨달음

이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방심하여 생각에 한 점이라도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자신의 공간장에서 위아래로 뛰어다니는 추악한 생명이 생겨납니다. ‘멸(滅)’ 자가 나오자마자 그것은 즉시 녹아버렸습니다. 저는 “물질과 정신은 일성(一性)”(전법륜)임을 진정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의 일사일념(一思一念)을 잘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생각이 법에 있지 않고 제멋대로 흐르게 내버려 두고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때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공간장은 얼마나 많은 이런 쓰레기들로 가득 차겠습니까. 그리고 이 쓰레기 같은 생명들은 우리의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기에, 우리의 공간장에서 교란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찰

모든 것이 일단락됐을 때, 1년 넘는 수련을 조용히 되돌아보니 제가 항로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속인의 더 많은 기술과 지식을 얻기 위해 법공부와 발정념 시간을 계속 줄이고 또 줄여, 결국 수련에 남겨진 그 적은 시간조차도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해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착실한 수련도 따라가지 못했고, 온갖 사람 마음(人心), 사람 생각(人念), 사람의 정(人情)이 틈을 타 범람하여 사악이 빈틈을 파고들어 하마터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뻔했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가 없고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내 위험한 국면을 만회해주시지 않았다면, 이번 결과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련은 얼마나 엄숙한 일인지, 조금의 게으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법과 중생에 대한 무책임이며, 엄하게 말하면 범죄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교훈이었지만 사부님께서는 제자가 스스로 불러온 이 고난을 이용하여 제자를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광대한 홍금이고, 얼마나 크나큰 지혜이며, 얼마나 무량(無量)한 자비입니까? 정말 인류의 언어로는 사부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합니다!

글솜씨의 한계로 경험한 것, 깨달은 것, 생각한 것의 만분의 일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자비롭게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되기, 선행의 기본 함의 탐구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반(反)박해가 27년째로 접어들면서 중국 개별 지역에서 또다시 가짜 경문 소문이 돌고 있다. 가짜 경문을 만드는 사람과 그 수법이 매번 매우 졸렬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소수의 사람이 그에 동요되곤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수련의 기본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전통문화 속의 ‘사람 됨됨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조금 복습해 보는 것이 누락을 메우는 한 가지 방편이 되리라 생각한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중화 5천 년 문화에서는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積善之家, 必有餘慶)”라고 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쌓는 것인가? 명나라 원료범(袁了凡)은 아들에게 주는 가훈에서 열 가지 선행 이야기를 썼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만약 세밀히 따져본다면 “선행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으며, 곧은 것이 있고 굽은 것이 있으며, 음(陰)적인 것이 있고 양(陽)적인 것이 있으며,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으며, 치우친 것이 있고 바른 것이 있으며, 절반인 것이 있고 원만한 것이 있으며,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으며, 어려운 것이 있고 쉬운 것이 있다. 이것들은 각각 도리가 있으니 마땅히 자세히 변별해야 한다. 만약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속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선을 행한다고 자부하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죄업을 짓는 것임을 어찌 알겠는가”라고 했다.

원료범은 ‘적선지방(積善之方)’이라는 가훈에서 현대에도 많은

실례를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을 기술했다. 몇몇 선비들은 자신들이 어찌 선악을 명확히 모르겠으며 더구나 선악을 뒤바꾸겠느냐고 여겼으나, 그들과 대화하던 다른 한쪽(한 승려)은 명확히 지적했다. 세상 사람(선비를 포함해)들은 세속적인 관점에 가려져 있기에 당연하다는 듯이 선악을 판단하며, 도리어 하늘의 선악 응보가 틀렸다고 원망한다고 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해 이 가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출발점과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선이고, (출발점과 목적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악이다. 한 사람이 행한 선한 일이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공(公)이며, 공은 곧 진짜(眞)다. 오직 자신이 얻을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사(私)이며, 사는 곧 가짜(假)다. 양심에서 우러나온 선행은 진짜지만, 그저 관례대로 하는 시늉만 내는 것은 가짜다. 보답을 구하지 않고 행하는 선행은 진짜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

단곡(端曲, 바름과 굽음)에 관해 글에서는, 옛 성현들은 차라리 뜻이 높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혹은 자기 분수를 지키며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높이 샀다고 했다. 이런 사람이라야 책임감이 있고 하는 일이 있어 가르쳐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높이 사는 것은 유들유들한 사람, 혹은 겉으로 보기에 성실하지만 실제로는 원칙을 상실한 ‘호인(공자가 말한 향원[鄉愿])’이다.

그러므로 공덕을 쌓으려면 “반드시 마음이 움직이는 미세한 곳에서부터 자신의 마음을 묵묵히 깨끗이 씻어내야 하며, 악(순수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한 일념이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세상을 구제하려는 마음뿐이면 곧은 것(直)이고, 만약 세속에 아부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굽은 것(曲)이다. 오로지 사람을 사랑하는(자비로 남을 위하는) 마음뿐이면 곧은 것이고, 만약 세상 사람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굽은 것이다. 오로지 타인을 공경하는 마음뿐이면 곧은 것이고, 만약 사람을 희롱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굽은 것이다. 이것들을 모두 세밀히 분별해야 한다.”

“무엇을 음양(陰陽)이라 하는가? 무릇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여 남들이 아는 것을 양선(陽善)이라 하고, 선한 일을 하되 남들이 모르는 것을 음덕(陰德)이라 한다. 음덕이 있는 사람은 하늘이 자연히 알고 보답해 줄 것이다. 양선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를 알고 칭찬하므로 세상의 명성을 누리게 된다. 좋은 명성을 누리는 것도 복이긴 하지만, 명성이라는 것은 천지가 꺼리는바, 천지는 명성을 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문제를 찾으려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에는 수신(修身)함에 있어 모두 성현을 표준으로 삼았는데, 하물며 수련인은 더욱 법(法)을 스승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가짜 경문, 색다른 것을 내세워 과시함(標新立異), 요란함, 파벌 짓기, 끊임없는 쟁투, 자기 고견 고집, 밖으로 밀어내기, 습관적으로 속인 차원에서 자신이 수련 중 만난 사람과 일을 대하는 것, 이런 행위들은 외부의 교란을 제외하고라도, 속인 차원이나 수련 차원에서 모두 선악을 모르고 선을 닦아야 함을 알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전법륜(轉法輪)』에서 말씀하셨다. “연공인은 확실하고 확실

하게 말한다. “속인은 속인이 추구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추구하지 않고, 속인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속인이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다.””

사부님께서서는 『전법륜』에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心性(썸썸)이란 무엇인가? 心性(썸썸)은 德(더)[德(더)는 일종 물질이다]를 포괄하고, 참음(忍)을 포괄하며, 깨달음(悟)을 포괄하고, 버림(捨)을 포괄하는데, 속인 중의 각종 욕망과 각종 집착심을 버리는 것이며, 또한 고생을 겪을 수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방면의 것을 포괄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장기간 정진하지 않는 수련생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정법수련의 시간을 대부분 속인의 속세 일에 낭비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상 관념이 사람 중에 머물러 있으며, 다른 사람이 과거에 성숙하지 못했을 때 범했던 잘못을 똑같이 범하고 있다. 이런 지역에서 박해의 압력이 좀 더 크고 혼란스러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관념을 내려놓는 사람이 많아지고 수련해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져야만, 외부의 사악을 제거할 수 있고 심지어 악이 스스로 멸망하는 효과에 도달할 수 있다. 문제에 부딪히면 끊임없이 논쟁하고, 자아를 강조하며, 남을 부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남에게 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만약 장기간 사람의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매우 쉽게 박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고 속인 중의 선악을 진정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세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노력하여 자신에게 법의 요구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수련인이다. 물론 수련은 각자의 개인적 선택이며 수심(修心)은 강요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그저 얌은 토론이자 선의의 일깨움이며 참고용일 뿐이다.

대법으로 마음을 씻고 사부님을 도와 감로를 뿌리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많은 수련생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대법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병을 뿌리 뽑기 위해 어린 저를 데리고 수시로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을 전전하셨고 심지어 황량한 산골 오지의 ‘신비한 점집’까지 찾아다니셨습니다.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분들은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냘픈 몸을 이끌고 고난 가득한 인생의 여정을 힘들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대법을 만나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를 받고 나서야 몸이 건강해지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저에게 두번째 생명을 주셨고 영생으로 통하는 밝은 신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 소원을 품고 복으로 향하다

우리가 법을 얻은 기쁨과 생명이 불은(佛恩)에 잠긴 행복에 젖어 있을 때, 진선인(眞·善·忍)을 겨냥한 하늘을 뒤덮는 광기 어린 탄압이 몰래 막을 올렸습니다. 창생을 복되게 하고 만민을 구하는 대법이 마음대로 왜곡됐으며 사부님께서는 무고하게 모함을 당하셨고 선량한 대법제자들은 마구잡이로 납치되었습니다. 대법을 위해 공정한 말 한마디를 하고 사부님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수련생들은 속속 베이징으로 청원을 하러 떠났습니다. 청원의 길이 막히자 다들 천안문으로 가서 대법을 실증했습니다.

수련생들이 무리를 지어 가고 오면서 천안문에서 대법을 실증

한 가슴 벅찬 거사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는데 지금 대법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제가 어찌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베이징에 가서 정부에 대법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며 사부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고 결백하시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몰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목숨이 위태로울 때 대법이 기적을 나타내 저를 구하고 새 생명을 준 기적을 직접 목격하셨기에 걱정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습니다. 떠나기 전 친척 집의 다섯 살도 안 된 아이가 우리집에 놀러 왔다가 뜬금없이 저를 보고 “풍선 파는 언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만 사부님께서 일찍이 밖으로 나가는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금강불파(金剛不破)의 보호막을 씌워주셨던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우리는 다른 도시를 거쳐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 열차가 칠흑 같은 밤을 가르며 달릴 때 처음으로 혼자 먼 길을 떠난 제 마음에는 부모님에 대한 애뜻함이 밀려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수련인이다. 사부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셨는데 제자가 나가서 말하지 않는다면 또 누가 나서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부님의 법을 외우며 정념(正念)을 굳건히 하고 계속 북으로 향했습니다.

중간 환승표였기에 우리는 베이징과 아주 가까운 작은 역에서 미리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7~8명의 동행 무리는 결국 중공(중국공산당) 악당들의 주의를 끌었고 차단과 검문을 당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느라 그들과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에 무심결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고향에서 수천리 떨어진 낯선 도시를 홀로 걷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막막했습니

다. 집에서 입고 먹는 걱정 없이 대접만 받던 저는 처음으로 무력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부님이 계시고 법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한밤중이었는데 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침 로비 등을 밝힌 작은 여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친절할 청년을 만나 작은 객실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속 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표를 사서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무심코 본 TV 뉴스에서는 중국 고고학자들이 신장 사막 깊은 곳에서 고분 한 곳을 발굴했는데 미소 띤 어린 소녀 모습의 유골이 풍사 속에서 천 년 동안 미소 짓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와의 인연은 알 수 없었지만 생명의 창상(滄桑)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이토록 짧고 덧없는 것인데 왜 마음이 가는 대로 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주저 없이 배낭을 메고 다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설이 가까워지자 기차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가족과 단란하게 모이기 위해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고 있었고 마음속에 담긴 인생의 애환을 품은 채 각자의 인생 각본 속 역할을 충실히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련인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불법(佛法)이 담겨 있습니다. 막 이 생각이 들자 몸이 강력한 에너지장에 둘러싸인 느낌이 들었고 마음은 기쁨과 안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부님께서 제 곁에 계시며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선달그믐날 저녁 베이징에는 눈송이가 흩날렸습니다. 수정처럼 투명한 백설도 대법의 이 천고의 억울함을 씻어내는 것을 돕고

싶어 하는 듯했습니다. 베이징 곳곳에는 사복경찰이 깔렸고 장안가(長安街)는 초소로 가득했습니다. 나중이야 알았지만 그날 세상을 놀라게 한 ‘천안문 분신’ 조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작은 여관을 찾아 묵었는데 주인은 대법제자들의 명단이 인쇄된 블랙리스트 책자를 들고 투숙객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분증이 없었기에 순찰경찰에게 발견돼 의심을 샀고 따로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문을 받던 중 그 경찰은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으며 먼저 가버렸고 여관 주인에게 저를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시험 삼아 밖으로 나갔는데 주인은 못 본 척했습니다. 낯은 주민 거주용 건물 복도에서 밤을 꼬박 새웠지만 무섭지도 춥지도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저는 천안문을 경유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천안문은 이미 계엄 상태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대법제자가 생사를 내려놓고 몸으로 법을 수호했던 그곳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저는 성과 없이 끝난 이 험난했던 여정을 되새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더욱 정진해서 수련생들의 발걸음을 따라잡겠다고 말입니다. 갑자기 눈앞에 수천수만 장의 흑백 진상 전단이 한 장 한 장 차례대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이때 천하가 모두 내 집이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족이라는 광활한 흥금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사부님께서 저를 격려하시며 낙담하지 말고 세간에서 중생을 구하는 것 역시 사부님을 도와 법을 바로잡는 일임을 알려주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2. 대법으로 마음을 씻으니 인간 세상에 꽃이 피다

몇 년도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선원(神韻) 프로그램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절에 자질이 부족하고 다소 우둔한 어린 스님이 있었는데 불법의 진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신의 가지(加持) 아래 각고의 노력을 통해 신기한 무예를 닦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대법 안에서 성장해 온 저 자신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졸업부터 대학 진학, 그리고 직장을 구하기까지 고비마다 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여러 속인 친척이 각기 다른 일로 우리집을 찾아왔고 제 일은 마치 실로 펜 듯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향을 제시해줬고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사부님의 배치는 이토록 정교하셨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학업과 일을 하면서도 충분한 수련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법공부와 수련은 제가 수련의 길을 바르게 걷는 가장 큰 보증이 되었습니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동료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간관계에 매달리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계약을 따내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저는 제 본분을 다하며 진심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정성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한 명의 고객이 선이 되고 그 선이 면이 되어 시장의 한 구역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언제나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팀장은 저를 부서의 복덩이라며 장수(將帥)의 재능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대법의 위덕이며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영광임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각 부서 정예반을 조직했을 때 회의 기간 중 저는 막힘없이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본 업계와 많은 사회 인생 문제

에 대해 독특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담론을 펼쳤습니다. 공산당 당 문화(黨文化)와는 다른 신선한 견해들은 사회 경험이 많은 노련한 동료들로 하여금 저를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큰 안목과 사고력을 갖췄으며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대법에서 기원했으며 대법이 저에게 부여한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집착심이 생겨 항로에서 벗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심성이 낮아지면 처한 환경도 덩달아 낮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속인처럼 인간관계의 냉혹함을 느끼고 인간 세상의 온갖 고충을 맛보며 마음은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오직 사부님께서 줄곧 묵묵히 보살피 주시고 일깨움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꿈속에서 제가 강철 벽을 가볍게 통과하는 것을 느꼈고 가부좌를 할 때는 저 자신이 웅장한 높은 산이 된 것 같았으며, 심지어 산의 세밀한 결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가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고 울타리를 벗어나 정념을 굳건히 하며 자신의 수련의 길을 바르게 걷도록 끊임없이 격려해주셨습니다.

3. 중생구도를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사부님을 도와 감로를 뿌리다

1) 멀리서 찾아온 무료 묘목 전문가

저에게 먼 친척뻘 되는 외삼촌 한 분이 계시는데 고향 마을의 촌지부기입니다. 몇 년 전 주민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자금을 모아 수입 과일 묘목을 샀습니다. 그런데 재배 경험이 없다 보니 과일나무가 자라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지 농업기술자들은 이런 묘목에 경험이 없어 외지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본 끝에 랴오닝성 쪽에서 이 과일나무 재배 경험이 풍부한 농업기술자 부부의 전화번호를 얻었습니다. 전화 한 통을 걸었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부부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과수 농가들에 재배 경험을 전수하며 각종 의문에 인내심 있게 답해 주었습니다. 일이 끝난 후 마을에서 큰 보답을 하려 했지만 부부는 손을 저으며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파룬궁수련생이며 그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고향 분들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드린 것뿐이니 보답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수년간 대법을 모함하는 중공 악당의 거짓말이 중국 곳곳에 퍼졌지만 선량한 민중은 대법제자들을 통해 진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파룬따파는 정말 좋구나. 도대체 어떤 대법이기에 이런 좋은 사람들을 가르쳐 낼 수 있었을까!’라며 묵묵히 서로 전했습니다.

과일나무는 갈수록 잘 자랐고 매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인근 지역 마을 주민들은 모두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중학교 시절 반장은 대학 졸업 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계법인에 취직해 자주 해외를 다녔습니다. 최근 일이 있어 고향에 돌아왔고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술잔을 나누며 즐겁게 학창 시절 우정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화제를 돌려 진상을 알리려 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해 빗줄기가 굽어졌고 그녀의 남편이 차를 몰고 마중을 왔습니다. 반장은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향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만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장, 잠깐만 기다려줘.”

내성적인 성격인 제가 한달음에 달려가 로비까지 쫓아갔습니다.

“무슨 일이니, 동창아?”

반장은 중학교 때처럼 여전히 온화하고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네가 해외에서 자주 근무한다고 들었어. 그리고 어머니 건강도 좀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중화 우수 전통문화를 표현한 아주 멋진 쇼를 추천하고 싶어. 에너지장이 엄청나다고 하니 꼭 어머니 모시고 함께 보러 가봐.”

“쇼라고? 이름이 뭔데?”

“선원이야. 신선 신(神) 자에 운치 운(韻) 자를 써.”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반장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고 꼭 보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뒤따라온 동창들은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사람을 울릴 정도로 감동을 줬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것은 선원이었습니다. 대법 사부님께서 직접 이끄시며 순선순미(純善純美)한 가무 형식으로 창생을 구원하는 선원은 말겁(末劫)의 마지막 시기에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입니다. 예전에 대법이 중국에서 배포한 첫 번째 선원 CD를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줄곧 ‘선원은 내 집이고 나는 선원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겁이 나고 자격지심이 생길 때면 마음속에 늘 상황에 딱 맞는 선원 음악 선율이 맴돌며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저를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3) “이렇게 좋으신 선생님과 꼭 자주 연락해야 해”

동료 샤오팡(小芳)은 유행에 민감하고 꾸미기 좋아하는 현대적

인 아가씨입니다. 퇴근 후에는 개인 상점을 운영하거나 위챗 비즈니스, 라이브 방송까지 하며 아주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함께 나들이를 갔을 때 저는 그녀에게 대법 진상과 제가 혜택을 입어 구원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놀라워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선생님과 꼭 자주 연락해야 해!”

저는 그만 웃음이 터져 나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이 귀엽고 선량한 아가씨는 이제 임시직에서 정규직 기술직으로 전환됐고 가정도 원만하고 행복합니다. 정말 대법을 선하게 대하는 일념이 하늘의 축복과 평안을 가져다준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대한 정법(正法) 시기에 태어나 운 좋게 대법에 제도돼 사부님의 제자가 된 지 어느덧 28년의 수련의 길, 28년의 생명 승화의 길이 흘렀습니다. 천진난만한 소년 시절을 지나 혈기 왕성한 청년을 거쳐 이제 여유롭고 이성적인 중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부님의 보살핌과 도움, 그리고 거듭된 기다림이 있었던 여정이었습니다. 제자는 보답할 길 없으니 오직 끝까지 진수(眞修)해 사부님께서 미소 지으시길 바랍니다.

수련자를 잔혹하게 해친 자들의 인과응보 사례

[명혜망] 중국 전통문화에는 ‘하늘은 생명을 사랑하는 덕이 있다(上天有好生之德)’,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7층 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救人一命勝造七級浮屠)’, ‘하늘은 사람을 죽을 길로 내몰지 않는다(天無絕人之路)’ 등 생명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구제하는 것과 관련된 속담이 많다. 즉 예로부터 사람의 목숨은 하늘처럼 소중하며 인성이 지고지상하다는 뜻이다. 언제 어디서든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의 법률 제도와 공권력의 행사는 인권 수호와 생명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법률의 경계이자 국가의 근간이다.

비극적이게도 중국공산당(중공)이 화하(華夏) 대지를 점령한 이후 중공의 역대 운동은 살인, 사람 잡기, 해치기를 목적으로 했으며 8천만 명의 중화 아들딸을 살해했다.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불법(法輪佛法)을 불법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 이래 일부 중공 관리들은 중공의 박해 정책에 복종하며 수련자들에게 잔인하고 악랄하게 굴어 수련자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많은 파룬궁수련자가 박해로 사망했다. 그렇다면 수련자의 길을 끊어버린 자들의 결말은 어떠했을까?

1. 헤이룽장성 인과응보 세 가지 사례

헤이룽장성 치타이허시 공안국장 자오춘보의 응보

2019년 11월 22일, 헤이룽장성 치타이허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 자오춘보(趙春波)가 집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그는 생전에

줄곧 암 통증에 시달렸다. 자오춘보는 박해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박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됐다. 2008년 3월 4일~13일까지 치타이허시에서 약 40명의 파룬궁수련자가 경찰에게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고 14명이 납치됐다. 2010년 7월 3일, 파룬궁수련자 류수링(劉術玲)은 경찰에 의해 철제 의자에 묶인 채 전기봉으로 고문당해 사망했다. 54세였던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목에는 검은 피멍이 한 줄기 나 있었다. 자오춘보가 암에 걸리고 투신한 것은 현세에서 받은 응보다.

헤이룽장성 다칭시 경찰 린바이청의 응보

원래 헤이룽장성 다칭시 홍강 파출소의 불법 경찰이었던 린바이청(林佰成)은 2022년 홍강구 채유 4공장 작업장으로 가던 길에 삼륜차를 몰고 후처(後妻)를 태우고 가다가 마주 오던 경찰차와 충돌해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린바이청이 파룬궁을 박해하자 하늘은 끊임없이 그에게 경고를 보냈다. 예를 들어 2001년 경 가스통을 옮기다 손가락을 다쳤고 2004년 8월 상순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대형차와 충돌해 이마가 크게 찢어져 20일 넘게 입원했다. 그러나 린바이청은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경고를 저버렸으며 결국 응보로 겨우 60세에 비명횡사했다.

헤이룽장성 치타이허시 경찰 안리의 응보

헤이룽장성 치타이허시 베이산 파출소 경찰 안리(安力, 남, 1964년 10월생)는 2023년 2월경 소위 ‘방문 조사’ 대상인 장(張) 씨의 집으로 가던 길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안리는 오랫동안 파룬궁 박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파룬궁수련자들의 선량한 권고를 귓등으로 흘렸다. 악당이 벌인 이른바 ‘제로화 행동’ 때는 더욱 앞장서서 날뛰며 여러 파룬궁수련자에게 수

련 포기 서명을 강요했다. 안리가 박해 임무를 수행하러 가던 길에 심장마비로 급사한 것은 스스로 진상을 알지 못한 채 무지하게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다가 응보를 당한 것이다.

2. 인과응보, 왜 업보를 당하는가?

사람은 살아있어야 인생이 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오춘보는 권세와 힘이 있었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했는가? 린바이청은 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가? 안리는 왜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러 가는 길에 급사했는가? 이는 모두 그들이 지은 악이 많아 복덕(福德)이 다했기 때문이다. 비참하게 하늘에 의해 목숨을 거둬지고 지옥에 떨어져 형벌을 받는 것이, 과연 그들이 생전에 바라던 일이었을까?

파룬궁은 결코 중공이 비방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파룬궁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라고도 하며 불가(佛家)의 고승 수련 대법이다. 우주의 최고 특성인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원칙으로 수련을 지도하며 간단하고 우아한 다섯 가지 연공 동작을 보조로 하여 수련자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심신을 정화하고 도덕을 회복하게 한다. 많은 사람이 아직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당초 많은 중국 당원과 고위 관리들도 파룬궁을 배웠다. 그들이 파룬궁이 좋은 줄 몰랐던 것이 아니다.

1998년 8월 11일, ‘베이징 일보’는 베이징 시민의 아침 연공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특별히 파룬궁을 언급하며 파룬궁수련자들의 연공 사진을 게재했다. 1998년 10월 20일, 중국 국가체육총국이 창춘과 하얼빈에 파견한 조사팀 팀장은 파룬궁을 조사한 후 파룬궁의 건강 증진 효과와 사회 안정 및 정신 문명 촉진 작용을

긍정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이 바른 신념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함을 되찾으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며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는 행위다. 사실 지금까지도 사회 어느 곳에서든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진선인에 따라 사람이 되어 가정과 사회에 이로움을 주고 대중의 도덕을 높이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즉 중국에서 조차 파룬궁수련자를 납치, 기소, 재판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천리(天理)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경찰의 책임은 범죄를 저지하는 것이지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다. 관리의 직무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민중을 학살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나 관리가 수련자 납치를 지시하거나 파룬궁수련자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을 가해 이른바 전향을 강요할 때 그는 수련자에게 치욕, 위협, 고통을 가하는 것이며 그 수련자의 가정이 파탄 나는 비극을 가중하는 것이다. 그의 악행은 많은 사람의 살길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수행(修行)을 망쳤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은 박해자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처벌하며 심지어 죽어도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는 것이다.

역사를 거울로 삼아보자. 후주(後周) 세종(世宗) 시영(柴榮)은 직접 큰 도끼로 불상을 찍어 부수었다가 가슴에 악창이 생겨 겨우 39세 나이로 사망했다. 또한 문화대혁명 전후로 중공을 추종하며 앞장서서 절을 부수고 불상을 파괴했던 사람 중 끝이 좋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당시를 겪은 농촌 어르신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옛사람들은 “차라리 천 개의 강물을 저을

지언정 수도인의 마음은 어지럽히지 말라”고 했다. 수련인을 박해한 죄업은 너무나 커서 대대손손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3. 공직자는 어떻게 자신을 구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압박 속에서 공직을 수행할 때 어떻게 스스로 함정을 빠지고 재난을 당하는 액운을 피할 수 있을까?

자료에 따르면 송나라 건국 명장 조빈(曹彬)은 ‘성품이 어질고 용서가 많아 일찍이 무고한 사람을 단 한 명도 죽인 적이 없다’고 한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남당(南唐)을 정벌해 금릉성 아래까지 진격했을 때 입성을 앞둔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병을 핑계로 누웠다. 장수들이 문병을 오자 조빈은 말했다. “나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오. 오직 제장(諸將)들이 성을 함락하는 날 단 한 사람도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맹세한다면 내 병은 자연히 나을 것이오.” 이에 장수들이 제상을 차리고 하늘에 맹세하며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고 보장하자 금릉과 강남의 여러 지역은 약탈을 면할 수 있었다. 조빈은 이 정벌에서 자신에게 혈채(血債)를 지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장수들에게도 복을 아낄 기회를 주었다.

사람들은 작은 선이라고 해서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작은 악이라고 해서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어떤 일들은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심에 대한 시험이며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다.

옛사람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20여 년 전에 일어난 짧은 이

야기를 해보자. 1999년 7월 20일, 중공 악당 장쩌민(江澤氏) 일당이 파룬따파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각 기관, 기업, 학교 대중에게 서명과 태도 표명을 강요하며 거짓말로 파룬궁에 대한 증오를 선동했다. 2000년 초 어느 날 모 단위 기술처의 설계조 조장인 천(陳) 기사와 공예조 조장이 베이징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전날 떠난 그들이 다음 날 바로 돌아왔다. 왜 출장을 가지 못한 것일까?

천 기사는 돌아오자마자 큰소리로 외쳤다. “세상이 이게 뭐니까?! 기차를 타려면 욕을 두 마디 해야 하고 사진을 뵈어야만 탈 수 있다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나는 출장 업무를 보러 가는 겁니다. 역의 경찰은 내가 욕을 안 하니까 ‘욕을 못 하는 걸 보니 당신은 파룬궁수련자구나’라고 하더군요.” 천 기사는 “나는 (파룬궁 창시자를)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뵈지도 않을 것이고 욕도 안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결국 그들은 그를 기차에 태워주지 않았고 그렇게 출장은 무산됐다.

상사가 말했다. “업무는 완수해야 하니 내일 다시 가보게.” 열흘쯤 지나 그들이 베이징에서 돌아왔다. 천 기사는 말했다. “정말 이상해요. 다음 날 기차를 탈 때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차에 타고 나서 보니 바닥에 사진들이 그렇게 많이 깔려 있는 게 아닙니까.” 천 기사는 좀 기이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지난번의 선념(善念)과 의로운 행동 덕분에 신불(神佛)의 보호를 받은 것이었다. 파룬궁은 불법(佛法)이다. 천 기사가 하늘의 이치를 어기는 일을 거절하고 파룬궁 사부님의 사진을 뵈기를 거부한 행위는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사

실 아주 큰 선행이다.

그뿐만 아니라 천 기사의 선행은 자신과 가족에게 큰 복을 가져다주었다. 2005년 그의 아내가 위독했는데 파룬궁수련자가 그녀에게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라고 알려 주자 그녀는 그 말을 따랐고 결국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중에서도 선보(善報)다.

맺음말: 파룬궁수련자는 왜 진상을 알리는가?

앞서 언급한 자오춘보, 린바이청, 안리는 수련자와 아무런 원한이 없었다. 그들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이고 아버지였다. 만약 중공의 박해 정책과 세뇌 선전이 없었다면 그들이 악당의 앞잡이가 되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대법제자들은 자신이 고통과 압박을 겪는 상황에서도 정성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있다. 이는 미혼탕(迷魂湯)에 취해 시비가 혼동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려는 것이며, 중공을 따라 수련자를 박해하지 말라고 선하게 권고하는 것이다. 그들이 업을 지어 하늘의 벌을 받고 가족과 자손에게까지 화를 입히는 험악한 경지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큰 선행을 베풀면 이번 생에 선보를 받을 수 있고 큰 악행을 저지르면 이번 생에 큰 업보를 받을 수 있다. 지은 죄가 너무 큰 사람은 자신만 업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덧붙여 말하자면 더 큰 악행을 저지른 자, 예를 들어 이번 박해를 일으킨 원흉 장쩌민 같은 자는 업보를 받고 지옥에 떨어진

이들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일까? 장쩌민의 죄업은 후주 세종 시영보다 훨씬 막대하다. 무간지옥의 모든 형벌을 다 합쳐도 그에게는 너무 가벼울 정도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영원한 죄와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생전에 박해를 명령한 모든 수련자의 고통을 합친 것보다 더한 고통일 것인데 그에게는 그 외에도 하늘을 찌르는 다른 죄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장쩌민의 죄는 그 자손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대신 갚아줄 수 없고 그의 부하 중 누구도 그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의 고문을 대신 받아줄 수 없다. ‘장쩌민의 두 번째’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그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즉시 악행을 멈추고 회개하고 속죄하며 죄를 감해주길 기도해야 한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

글/ 일언(一言)

[명혜망] 현재 많은 중국인은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人爲財死, 鳥爲食亡)”는 말을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옛사람들도 돈을 추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한다. 사실 고대의 이 말은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심지어 목숨을 건 무법자가 되는 것을 고취하는 말이 아니다. 이 고사를 한번 살펴보자.

아주 먼 옛날, 두 사람이 함께 산에 올라 숲을 굽고 있었다. 숲가마를 파다가 보물이 든 항아리를 발견하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중 한 사람이 말했다. “자네가 내려가서 점심 밥을 가져오게. 내가 여기 지키고 있을 테니 보물을 쫓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그래서 한 사람이 점심 밥을 가지러 산을 내려갔다. 다녀오는 데 한 시간 넘게 걸리는데, 기다리는 동안 숲가마에 남은 사람은 탄마음을 품게 됐다. ‘이 보물 항아리가 전부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절반을 나눠줘야 하다니 억울하구나!’ 탐욕이 생기자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보물 항아리는 전부 내 차지이 될 거야.’ 그는 흑심을 품고 밥을 가져오는 사람을 기다렸다.

한편 산 아래로 밥을 가지러 간 사람 역시 탐욕으로 악독한 꾀를 냈다. ‘밥에 독약을 넣으면 저 녀석을 해치울 수 있겠지. 그러면 보물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마침내 밥이 도착했다. 밥을 가져온 사람이 방심한 틈을 타, 가마를 지키던 사람은 팽이를 휘둘러 단번에 그의 목숨을 끊어버렸다. 가마를 지키던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남은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몇 숟가락 뜨기도 전에 중독되어 쓰러졌고 밥은 바닥에 쏟아졌다.

그때 지나가던 작은 새 몇 마리가 죽은 사람 곁에 내려앉아 쏟아진 밥을 쪼아 먹더니 역시 죽고 말았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신선이 이 광경을 보고 탄식했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구나!”

신선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사람은 재물을 탐하다 천리를 거스르고, 새는 배를 채우려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 얼마나 비통한가!

전통문화에서는 “군자는 재물을 좋아해도 도(道)에 맞게 취하고, 정숙한 여인은 색(용모)을 좋아해도 예(禮)로써 받아들인다”라고 했다(증광현문). 이는 군자가 부를 추구할 때는 정당한 경로와 도의에 부합해야 하며, 정숙한 여인은 태도를 중시하여 예절과 도덕 규범에 맞아야 한다는 뜻이다. 도덕과 선량함은 사람이 되는 바탕이며, 재물과 이성 문제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공자는 부에 대해 더 명확히 말했다. “부와 귀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나, 도로써 얻지 않으면 처하지 않는다. 빈과 천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나, 도로써 버리지 않으면 버리지 않는다.”(‘논어·이인’) 여기서 ‘처하지 않는다(不處)’는 머물지 않는다는 뜻으로, ‘취하지 않는다(不取)’는 의미로 확장된다. 즉 돈과 지위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도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없다면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사람이 되는 진리다.

그러나 장쩌민(江澤氏)이 집권한 이후 중국인은 시비와 선악이 전도된 시대로 접어들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부패, 이익 추구, 이익 앞에서 의리를 잊는 것, 간음과 난잡한 성관계를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됐다. 사실 돈과 이익 문제에서 ‘이치’는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부패를 영광으로 여기고,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은 모두 사람을 해치고 자신도 해치는 빗나간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밤에 문을 잠그지 않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으며, 남의 돈을 탐내지 않고,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던 데서, 사기와 기만이 유행하고, 살인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저지르며, 의사와 환자가 공모해 장기를 적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도덕의 타락이 아무리 끔찍하고 놀랍더라도 그것은 한 자 한 치씩 이 지경까지 미끄러져 내려온 것이다. 반성하고 깨어나지 않을 수 없다!



▲ 인도 파룬궁수련자들이 인도 교육부 산하 국립도서신탁기금회 (NBT)가 주최한 푸네 도서전(Pune Book Festival)에 참가해 대법서적 ‘전법륜(轉法輪)’과 ‘파룬궁(法輪功)’을 전시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02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697만 2065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